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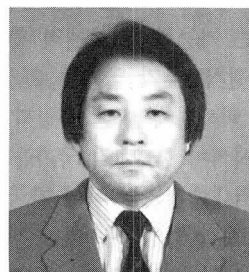
검은댕기해오라비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Butorides striatus*

英名 Amur Green Heron



겨울철을 제외한 대다수 계절의 전국 산야 어디에서나 관찰되는 새가 검은댕기해오라비이다.

물가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즐겨 먹는 식성을 가진 백로과의 물새이지만 번식은 논이 있는 촌락 뒷산의 숲에서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 새의 번식 行態이다.

요즘도 시골 마을을 답사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 새를 두고 목과 다리가 길어서 인지 따오기라 부르기도 하고 꺼우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농사에 해를 주지 않고 마을 인근에 살아서 인지 상당히 친근감을 갖고 있는 새이다.

개울이나 논, 강가, 저수지주변에서 지내는데, 4월 하순 동남아시아의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월동을 하고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에 고루 퍼져 살면서 번식을 하고 10월 초순이 되면 월동지로 떠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이다.

둥지는 대개 5m내외 높이의 나무가지 위예다 마른나무가지를 허술하게 접시형으로 짓고 한배에 청록색의 알을 4-5개쯤 낳는다.

암수는 같은 크기 같은 색깔인데 몸색깔이 청회색이나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이고 발정기의 어미새는

머리에 댕기를 땀은 듯한 긴 우관이 있는 것이 이 새의 특징이다.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어린 새의 육추기인 6월 하순에는 새벽부터 해진 후까지 활동을 하는데 새끼를 기르기 위한 모성애의 발로로 생각된다.

최근 도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민물고기 양식장이나 가두리 양식장에 이 검은댕기해오라비의 출현이 빈번하여 물고리를 채식하는 천적조류로 미움을 사고 있다.

그것은 먹기위해 물고가는 물고기 이외에도 사냥을 하면서 물고기 머리에 상처를 입게 하여 많은 숫자의 물고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허수아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물을 치기도 하는데 두번 다시 속지 않는 조류의 꾀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

월동지의 검은댕기해오라비는 열대 밀림의 수로나 작은 개울에서 수서곤충을 주로 채식하고 작은 전마선이나 어선이 닿는 포구에도 깃드는 것을 보았고 입지적으로 습지가 잘 조성된 홍콩의 마이포나 대만의 타이페이 관두, 자연보호구에서도 많은 개체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